

현대 러시아 대중문학 읽기

: B. 아쿠닌의 『아자젤』을 중심으로*

이 항 제**

1.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이후 현대 러시아문학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대중문학(массовая литература)¹⁾의 ‘갑작스런’ 출현과 ‘놀라운’ 인기이다. ‘갑작스럽다함’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문학의 사상성과 사회-정치적 의미를 강조한 러시아 문학의 역사와 전통에서 오락성과 가벼움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학의 출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놀랍다함’은 대중문학이 서점의 서가에서 빠르게 순수문학을 밀어내고 대부분의 서가를 점령한 사실에서 비롯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공원이나 전철에서, 심지어 강의실에서 푸쉬킨, 톨스토이, 고리키, 솔로호프 같은 고전작가들보다 알렉산드라 마리니나(A. Маринина), 폴리나 다쉬코바(П. Дашкова), 엘레나 야코블레바(Е. Яковлева)같은 추리소설 작가들과 블라지미르 바실리에프(В. Васильев), 예브게니 루킨(Е. Лукин), 알렉산드르 그로모프(A. Громов) 같은 환상소설 작가들을 더 많이 읽는다. 소수의 독자들이 읽는 고전문학과는 달리 대중문학은 수만, 수십만 부씩 팔려나가면서 장안의 종이값을 올려놓았다. 오늘날 러시아의 대중문학은 개혁-개방 직후의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보통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 본 연구는 200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이 논문에서 대중문학은 “대중성을 위주로 하여 흥미 있는 소재를 다룬 문학으로 추리소설, 연애소설, 환상소설, 모험소설, 유머소설 등 순수문학과는 대치되는 통속 문학”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대중문학에 대한 유형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과 논문을 참고 할 수 있다. 대중문학연구회 편(1996)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김중현 외(1999)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동국대한국문화연구소 엮음(2000) 『대중문학을 넘어서』, 아세아문화사; 김창식(2000)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황종호(2002) 「추리소설의 전망」, 『21세기 문학』, 가을호.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중문학은 문학적 현상이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이다. 오늘날 러시아 대중문학의 인기는 더더욱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대중문학은 동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동시대인들의 취향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문학의 엄숙주의, 문학의 교훈성과 사상성, 휴머니즘, 가깝게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내용에 식상한 러시아의 독자들은 개혁-개방의 공간에서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가벼운 읽을거리(беллетристика)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짜내는 멜로드라마, 남녀의 만남과 이별, 사랑과 배신, 과감한 성애묘사를 담은 연애소설, 냉철한 분석력과 강인한 의지로 무장한 명탐정이나 형사가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척척 해결하여 범인을 잡아내는 추리소설, 시공을 넘나들며 답답한 현실공간을 탈출케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소설 등은 독자들의 새로운 관심과 요구에 부응했다. 대중문학의 주요 요소인 사랑, 섹스, 자살, 살인, 사기, 강도, 테러, 마약, 알코올중독, 환상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현대 러시아 문학에서 대체로 터부시되어왔던 테마이다. 이런 금기의 테마가 해제되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흥분하면서, 러시아의 독자들은 거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자기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자기 위안과 대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대중문학의 결말에 대리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개방의 자유공간에서 독자의 가벼운 취미에 부응한 출판계의 발빠른 상업주의와 이에 영합한 막대한 자본의 영향력도 대중문학의 갑작스런 인기몰이에 한몫했을 것이다.

대중문학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문학적 현상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간에, 오늘날 러시아의 대중문학은 러시아 사회와 문학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이고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대중문학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수많은 대중문학 작품과 작가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나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중문학의 용어와 정의의 문제, 러시아 대중문학의 유형과 일반적 특징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 고작이다.²⁾ ‘거리의 서사시’

2) 벨로쿠로바와 드루고베이코는 대중문학(массовая литература, популя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ммер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을 구텐베르그 이후 시대에 발생해서 기술이 발달한 현대의 상황에서 존재하는 모든 작품으로 정의하고, 슈제트와 언어 및 문체의 표준성, 진부성, 도식주의와 형식주의를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톨스토이는 대중문학을 엘리트문화와 구비문화의 중간지대인 제3문학(третья словесность)으로 정

(бульварный эпос)³⁾로 불리는 대중문학에 대한 러시아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무관심은, 오락적이고 통속적인 대중문학은 고급문학인 순수문학과 비교해서 질이 떨어진 저급문학(низкая литература)이고, 이런 저급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고 처신없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전통적인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⁴⁾

본고는 현재 러시아의 대중문학, 특히 추리소설(детективный роман) 부문에서 알렉산드라 마리니나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리스 아쿠닌(B. Акунин, 1956-)의 『아자젤(Аزازель)』(1998)을 자세히 읽고 분석함으로써 러시아 대중문학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2.

현대 러시아 대중문학의 인기의 중심에는 추리소설이 자리하고 있고, 러시아 추리소설을 말할 때 보리스 아쿠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아

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С. П. Белокурова, С. П. Друговейко (2001)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нец XX века*. СПб, сс. 238-244.

- 3) B. Мясников(2001) “Бульварный эпос,” *Новый мир*, No. 11. 이 논문에서 마스니코프는 러시아 대중문학의 현상을 서구의 대중문학과 비교하면서 광범위하게 일별하고 있다. 특히 추리소설과 스릴러를 ‘거리의 문학’으로 이름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진지한 관심과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 4) 몇몇 연구자들 및 작가들의 대중문학에 대한 호칭 - ‘작은 풀잎무늬가 있는 문학’(мелкотравчатая литература/ Ф. Ф. Кузнецов), ‘진부하고 가벼운 읽을거리’(банальная беллетристика/ Ч. Айтматов), ‘문학적 필수품’(литературный ширпотреб/ Ф. Ф. Абрамов) - 에도 대중문학에 대한 폄하가 나타난다. 대중문학에 대한 이러한 명칭은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С. П. Белокурова, С. В. Друговенко(2001) с. 240.
- 5) 보리스 아쿠닌은 그리고리 샬보비치 취하르티쉬빌리의 필명임. 인터넷과 인터뷰 기사(「보리스 아쿠닌: 나는 더 즐겁고, 까다로운 독자는 더 흥미롭다...」, 『독립신문(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3. 12. 1999)를 통해 얻은 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56년 5월 20일, 그루지야에서 출생.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학 역사-철학부를 졸업하고 일본학 학사 학위를 받음. 『외국문학』 부편집장. 일본어와 영어로 씌어진 문학작품들(미시마 유키오, 마루야마 겐지, 이노우에 야수시)을 번역. 20권짜리 『일본문학선집』의 편집책임자, ‘푸쉬킨 문고’라는 대 기획의 이사회 의장. 『작가와 자살』(1999) 집필. 1998년부터 ‘보리스 아쿠닌’이란 필명으로 ‘에라스트 판도린의 모험’이라는 9권의 추리소설 시리즈를 써서 대성공을 거둠.

쿠닌화'(акунизация всей страны)⁶⁾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쿠닌 열풍은 20세기 말의 전 러시아를 강타했다. 특히 『아자젤』⁷⁾은 아쿠닌의 문학적 대 기획인 9부작 추리소설, 즉 '에라스트 판도린 형사의 모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아쿠닌 열풍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쿠닌의 손끝에서 태어난 에라스트 판도린(Эраст Фандорин) 형사는 '러시아의 셜록 홈즈'로 불리며 아쿠닌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도대체 『아자젤』의 무엇이, 판도린 형사의 어떤 점이 러시아 독자들을 사로잡은 것일까? 『아자젤』의 선풍적인 인기는 위에서 언급한 몇몇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존 추리소설과는 다른 문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나는 『아자젤』의 문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 소설의 슈제트를 자세히 정리하고, 테마, 주인공, 언어와 문체 차원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소설의 사건은 1876년 5월 13일 월요일 모스크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르 공원에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부 학생인 표트르 코로빈의 자살로 시작된다. 백만장자의 상속자로 밝혀진 코로빈은 좋은 목적에 사용하라는 유언장과 함께 50만 루블을 영국인 여자 에스터에게 남긴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젊은 신참 형사인 에라스트 판도린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살 현장 부근에 또 한 명의 젊은이(새우등에 여드름투성이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 젊은이는 코로빈의 동급생이자 유명 인사의 친척인 니콜라이 아흐트이르체프로 밝혀진다. 코로빈은 유언장에서 아흐트이르체프를 자신의 유언 집행인으로 지목했다. 판도린은 아흐트이르체프를 감시하다가 또 한 명의 인상적인 여자인 아말리아 베체츠키야를 알게 된다. 코로

6) Г. Егор(2000) "Акунизация всей страны. Гомукул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нижный клуб*, No. 3.

7) '에라스트 판도린 형사의 모험' 시리즈인 9편의 추리소설은 다음과 같다. <Азazel>(음모 추리소설), <Турецкий гамбит>(스파이 추리소설), <Левифан>(비밀 추리소설), <Смерть Ахиллеса>(청부살인 추리소설), <Особые поручения>(마니아 추리소설), <Статский советник>(정치 추리소설), <Коронация>(상류사회 추리소설), <Любовница смерти>(테카당 추리소설), <Любовник смерти>(디킨스적 추리소설). 괄호 속의 성격규정은 보리스 아쿠닌 자신이 한 것이다.

빈의 유언장에서 ‘A. B.’로 표시되어 있는 이 여자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운 처녀이다. 베첵스카야의 집에서 판도린은 그녀의 숭배자들인 아흐트이르체프와 이폴리트 주로프 등을 사귀게 되고, 베첵스카야로부터 ‘어떤 잔혹한 부인’이 코로빈을 살해했다는 고백을 듣게 된다. 판도린은 ‘어떤 잔혹한 부인’이 바로 베첵스카야라고 추정한다. 하루는 판도린이 아흐트이르체프와 함께 베첵스카야의 숭배자들이 모이는 술집에 들어서 아흐트이르체프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베첵스카야는 교활한 여자로서 자신의 숭배자들을 부추겨서 ‘아메리칸 룰렛’ 게임⁸⁾을 하도록 하고 죽은 자가 숭고한 목적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도록 했으며, 코로빈은 자신과 이 게임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때 갑자기 낯선 ‘애꾸눈’의 사나이가 달려들어 아흐트이르체프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판도린은 심한 부상을 입고 간신히 도망쳐 나온다.

아흐트이르체프가 살해당한 뒤 소설의 슈제트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반 브릴링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파견되고, 연역법의 신봉자인 브릴링은 아흐트이르체프 살인사건에서 이미 잠적한 베첵스카야는 무관하고 주로프가 연루되었다고 추정한다. 브릴링은 ‘대량 살인’(большая кровапролития)을 꿈꾸는 ‘니힐리스트 조직’, 즉 테러리스트 혁명조직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판도린은 코로빈이 거액을 유산으로 남긴 에스터라는 여자에게 관심을 돌린다. 에스터 부인은 고아들의 특별 교육기관인 ‘에스테르나트(эстернат)’의 소유자임이 밝혀진다. 에스터는 자신을 찾아온 판도린에게 ‘에스테르나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과 직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교양 있고 고결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판도린은 에스터에 대한 첫 방문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다.

한편 브릴링에게서 ‘쉬토스(штосс)’라는 카드 게임을 배운 판도린은 주로프와 판을 벌여 많은 돈을 따고, 그와 ‘아메리칸 룰렛’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프는 판도린을 신뢰하게 되고, 베첵스카야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판도린에게 보여준다. 이 편지를 통해 판도린은 베첵스카야가 영국의 런던으로 잠적했음을 알게 된다. 판도린은 아흐트이르체프의 살인 사건이 영국

8) 권총에 총알 한 발을 장전하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

의 간첩 행위나 음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외교문서 전달자로 위장하여 영국으로 건너간다.

판도린은 베체츠키야의 거처를 알아내어 그녀의 방으로 잠입하고, 그녀가 벽 속의 금고에서 푸른 서류가방을 꺼내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가방에는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녀는 미국, 브라질 등에서 정기적으로 편지를 받아서 페테르부르크의 누군가에게로 보내는 것으로 밝혀진다. 판도린은 이 편지를 읽으려고 하다가 베체츠키야에게 발각되고,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벌어진다. 판도린은 그녀에게 총을 쏘면서 서류가방을 들고 도망쳐 나온다. 판도린은 편지에 적힌 알 수 없는 성(姓)을 보고, 이들이 음모자나 살인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살해될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영국주재 러시아 대사관 서기인 포르피리 프리조프가 외교 행낭으로 서류가방을 모스크바로 보내자고 제안하지만, 판도린은 직접 서류가방을 들고 모스크바로 갈 결심을 한다. 잠시 후 베체츠키야가 두 남자를 데리고 판도린의 방에 나타나 서류가방을 빼앗고, 판도린을 뽕뽕 묶어서 자루 속에 넣은 다음 ‘아자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면서 템즈강에 던져버린다. 이 과정에서 판도린은 프리조프가 이미 매수되었고 베체츠키야와 한패임을 알게 된다. 강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오는 판도린을 프리조프가 막 살해하려는 순간, 판도린과 베체츠키야를 찾아 런던에 와 있던 주로프가 갑자기 나타나 프리조프를 총으로 쏘아버린다.

판도린은 어떤 비밀조직이 러시아의 중요 인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다. 브릴링은 판도린의 출현에 깜짝 놀라며, 자신이 최근에 비밀조직원들을 적발했는데 그들 중 몇몇이 살해되었다고 판도린에게 말해준다. 판도린은 비밀조직의 수장이 에스터의 오른팔인 커닝햄이라는 영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브릴링에게 말하지만 브릴링은 판도린의 추정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브릴링은 판도린에게 커닝햄의 체포를 제안하고 커닝햄의 집으로 가서 커닝햄을 사살한 후, 판도린도 사살하려고 한다. 이 순간에 판도린은 먼저 브릴링을 사살하고, 브릴링 역시 비밀조직인 ‘아자젤’과 연관되어있음이 밝혀진다. 이 사건을 새로 맡게된 라브렌티 미지노프의 명을 받아 판도린은 다시 모스크바로 가지만 에스터의 포로가 된다. 에스터와의 대화를 통해 판도린은 이 비밀조직의 수장이 커닝햄이 아니라 에스터임을 확신하게 된다. 판도린은 ‘아자젤’이 자신이 생각한대로 살인자들의 도당도 아니고, 브릴링이 확신한대로 니힐리스트-혁명가 집단도 아닌 전혀 새로운 조직임을 알게 된다. 에스터는 자신의 놀라운 활동과 목적과 과제를 판도린에게

들려주고, 전 세계 비밀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이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판도린의 비난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나는 그저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불행한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했지요. 할 수 있는 한 그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령 백 명이나 천 명의 아이라도 말이요. 그러나 나의 노력은 사막의 모래알 같은 것이었소... 나는 내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지요. 바닷물을 손가락으로 퍼낼 수는 없어요.⁹⁾

에스터는 자선활동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소수의 고아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전에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면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 아이들은 모두 세계의 보물이고 영광이며 새로운 인류의 의인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아주 필요한 사람이 되고,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을 최상의 상태로 바꿀 거요. 그 아이들은 현명한 법률을 만들고 자연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고 예술 걸작품들을 창조해낼 거예요. 해마다 그들은 더 많아질 테고, 그들은 이 더럽고 불공정하고 죄로 물든 세상을 개조할 겁니다!(290)

에스터는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바로 ‘아자젤’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아자젤’이 무엇이냐는 판도린의 질문에 에스터는 이렇게 답한다.

‘아자젤’은 사탄이 아니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계몽하는 위대한 상징이요.... 사람들은 연약하고 너무 맹목적이어서 신의 세계를 지옥으로 바꿔 놓았어요. 이따금 특별한 사람들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오래 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 덕분에 인류는 전진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간에게 자존심을 가르친 유대인 아자젤이요... 신은 인간에게 카드를 주었을 뿐이고, 카드놀이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아자젤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모두 아자젤입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자젤은 서서히, 조금씩 세계를 지배해야만 하는 나의 전위대입니다.(315)

‘아자젤들’이 지구를 영도할 때 지구는 번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20년 뒤

9) B. Акунин(2003) *Азazelь*, М., с. 290. 인용문의 우리말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며, 인용문의 쪽수는 본문에서 괄호 안에 기입한다.

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에스터에게 판도린은 베첸스카야가 러시아로 보내고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와 쪽지를 보여준다. 베첸스카야는 에스터와 그녀의 피양육자들인 ‘아자젤들’ 사이의 중개자이며,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아자젤들’의 사업 정보를 받고 그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에스터는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고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에스터의 지시에 따라 그녀가 천재 학자라고 생각하는 블랑크 교수가 판도린의 뇌를 수술하려고 한다. 에스터가 ‘교육’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블랑크 교수는 ‘전기분(электрофор)’을 이용한 전기치료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블랑크 교수는 뇌수술에 대해 판도린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오. 기억이 집적된 부분에 충격을 가하면 인간의 뇌가 백지가 되는 거요. 모든 지적 능력은 보존되지만 기존의 지식과 습관은 사라지지요. 당신은 신생아처럼 순결한 사람이 될 겁니다.(305)

판도린은 이번에도 뇌수술 담당자들을 속이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다시 에스터의 비밀 지하실에 잠입했다가 포로로 잡혀 치명적인 위협에 빠진다. 에스터는 판도린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위협한다. 에스터는 판도린으로부터 그녀가 양육한 ‘아자젤들’을 추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판도린을 풀어준다. 그러나 판도린은 에스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아자젤’ 조직의 폭로와 검거에 참여한다. 그 결과 판도린은 리자와의 결혼식 날에 폭탄 선물을 받게 되고, 이 폭탄의 폭발로 리자는 즉사하고 그 자신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2.2.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아자젤』의 슈제트는 매우 복잡하다. 추리소설 특유의 자살과 살인, 추격과 음모를 중심으로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런던을 배경으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곳곳에 함정과 복선이 깔려있다. 코로빈의 살해 용의자로 우선 베첸스카야, 아흐트이르체프, 주로프가 지목되지만 코로빈은 아흐트이르체프의 고백으로 베첸스카야의 사랑을 얻기 위한 남자들의 경쟁과 아메리칸 룰렛게임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밝혀진다. 코로빈의 자살사

건이 해결되는 지점에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베쉴츠카야, 커닝햄, 프이조프, 브릴링 등이 연루된 ‘아자젤’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판도린 형사는 결정적으로 죽을 고비를 네 번이나 맞이하지만 운 좋게 살아 남고, 결국은 인위적인 이상사회의 건설을 꿈꾸는 ‘아자젤’ 비밀 조직의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직의 지도자인 에스터가 마치 바람처럼 사라짐으로써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자젤』은 자살, 살인, 추격, 격투, 포로, 탈출, 음모, 배신, 돈, 사랑, 미모의 여자, 아메리칸 룰렛게임, 카드 등 추리소설의 전형적인 모티브와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런던을 배경으로 한 사건의 빠른 전개, 슈제트의 급격한 반전, 주인공의 치명적인 위험과 탈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액션과 스타일이 독자의 흥미를 고조시킨다. 그러나 이 정도의 내용은 ‘하드 보일드’ 형의 추리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아자젤』의 무엇이 기존의 정통 추리소설과 다른 것일까? 아쿠닌이 판도린 시리즈 각 권의 겉표지에 ‘새로운 추리소설(новый детектив)’이라고 적시하여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독자들은 『아자젤』의 무엇에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에라스트 판도린 형사의 형상에 주목해보자. 기존 추리소설에서 탐정, 범인, 희생자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이다. 이중에서도 탐정은 추리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 그러므로 추리소설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가보다는 탐정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가가 슈제트 구성의 중심 축이 된다. 정통 추리소설작가들(에드가 앨런 포, 아서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애거서 크리스티)이 창조한 뉘팽(에드가 앨런 포), 홈즈(아서 코난 도일), 에르쿨 포와로와 제인 머플(애거서 크리스티) 같은 탐정들은 대개 차갑고 냉철한 두뇌형 인간이다.¹²⁾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난 이들은 전지전능

10) 무법이 판치는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하드보일드’ 형 추리소설은 “간결하고 숙된 대화와 냉정한 묘사에 의해, 잔인하고 유혈로 가득 찬 장면을 냉혹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일컫는다. 추리소설의 유형과 일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조. 정규웅(2003)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64-65쪽.

11) 같은 책, 7쪽.

12) 놀랍게도 2002년에 에드거 앨런 포, 아서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전집이 ‘하늘 연못’, ‘황금가지’, ‘까치’에서 우리말로 거의 동시에 번역 출판되었고,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의 번역 출판(‘황금가지’)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뉘팽, 홈즈, 머플은 포, 도일,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함께 시

한 추리력과 분석력으로 보통 안락의자에 앉아서 복잡한 살인사건을 척척 해결한다. 그런데 판도린은 어떤가? 판도린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자라서 어렵게 최하위직 형사가 되었고, 모든 면에서 별로 내세울 게 없다. 한마디로 사람 좋고 성실한 보통사람이다. 물론 판도린도 무능한 상관인 그루신과 비교해서는 재능있고 똑똑한 형사이다. 그러나 판도린은 냉철한 추리와 분석보다는 타고난 성실함과 자기희생 정신으로 무장하여 온몸을 던져서 문명 세계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아자젤’ 조직을 파헤치고자 한다. 이점에서 『아자젤』은 초인적인 탐정이 등장하여 범죄의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는 영국의 추리소설보다는 범죄의 묘사에 무게중심을 두는 프랑스의 추리소설에 가깝고, 이른바 ‘경찰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판도린은 뒤팽과 홈즈 같은 ‘안락의자형 탐정’이 아닌 ‘움직이는 탐정’이다.¹³⁾

고전적인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받지 않고 대개 부상이나 죽음으로부터 안전하지만, 판도린은 사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범인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판도린의 행동을 통해 슈제트의 진행은 역동성을 띠게 되고 사건의 현장감, 긴장감, 스릴, 서스펜스가 고조된다. 이 과정에서 판도린은 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러시아판 ‘람보’인 셈이고, 마피아와 부정이 판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러시아의 독자들은 판도린의 활약에 대리만족을 느끼며 환호하는 것이다. 또한 판도린은 ‘안락의자형 탐정들’처럼 논리적 판단과 과학적 추리가 아닌 ‘놀라운 행운(сказочная удачливость)’에 힘입어 여러 차례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해결한다.¹⁴⁾ 그러나 범죄조직의 폭로와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판도린은 뒤팽과 홈즈처럼 소설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판도린이 범죄조직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도린의 ‘놀라운 행운’에 의해 범죄 자체가 폭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추리소설과는 달리 『아자젤』에서 중요한 것은 판도린 형사라기보다는 ‘아자젤’ 조직에 관련된 범죄자들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슈제트인 것이다. 판도린 못지 않게 주로프, 브릴링, 베쉴츠카야, 에스터도 각자 나름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며 슈제트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악 소설을 생

작된 추리소설의 봄은 문학사회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13) 정규웅, 앞의 책, 46쪽.

14) Б. Тух(2002) *Первая десятка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 с. 19.

각나게 한다.

2.3.

『아자젤』에는 판도린 형사의 ‘새로운’ 형상과 함께 일반적인 추리소설과는 달리 다양한 소설장르의 요소가 눈에 띈다. 우선 유토피아 소설과 환상소설의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아쿠닌은 에스터의 ‘아자젤’ 조직을 묘사하면서 인간과 인류의 ‘개량(улучшение)’의 테마, 사회적 우생학의 테마를 건드리고 있다. 이러한 테마는 인류의 발전과 진보의 문제,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의 건설계획과 연관된다. 보통 공산주의자들이나 파시스트들은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 실험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한다. ‘에스테르네트’ 조직의 수장인 에스터도 이상적인 사회와 인류의 급속한 진보를 꿈꾼다. 그녀는 인간을 개량하고 혁명이나 전쟁이 없이 인류를 이성적이고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고귀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녀에게 ‘아자젤’은 “인류의 구원자이자 계몽자로서 세계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정해야만 하는 전위대”이다. 공산주의자들이나 파시스트들은 혁명과 전쟁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에스터는 교육을 통해, 블랑크 교수는 전기충격요법이라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을 완전무결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재창조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에스터와 블랑크의 사상과 믿음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쥘 베른의 소설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을 생각나게 한다.¹⁵⁾ 그러나 판도린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으로 ‘아자젤’ 조직의 실체가 폭로되고 와해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과 인류에 대한 인위적이고 우생학적인 개량을 반대하고 인간 본성과 인류에 대한 자연적이고 점진적이고 유기적 발전을 찬성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의 수단화와 비인간화, 과학을 통한 획일주의와 전체주의적 발상을 거부하는 작가의 진지한 사상은 인간과 인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지향하는 러시아 문학의

15) 토머스 모어(1477-1905)는 『유토피아』에서 이상적인 국가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성애에 의해 지배되는 공산주의적 도시국가이다. 근대 공상과학소설(SF)의 선구자인 쥘 베른(1828-1905)의 『신비의 섬』과 『해저 2만리』의 주인공인 네모 선장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양(大洋)으로 떠난다.

인도주의적 전통과 연결된다. 이러한 진지한 문제의식과 휴머니즘 사상이 『아자젤』을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추리소설이 아닌 고전적인 품격을 갖춘 ‘새로운’ 추리소설로 만들고 있다.

『아자젤』에는 신화적인 요소도 발견된다. ‘아자젤’이라는 명칭 자체가 성서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쿠닌이 언급하고 있는 위경(僞經)인 ‘에녹서’에서 아자젤은 인간을 유혹하는 타락한 천사-사탄으로 등장하는데, 남성에겐 전쟁과 무기제조 방법을 가르치고 여성에겐 음탕한 화장술과 낙태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문명인의 행위인 것이다.¹⁶⁾ 그러나 에스터에게 ‘아자젤’은 사탄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늘나라에서 알았던 비밀을 인간에 알려준 영웅이다. 즉, ‘아자젤’은 인류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 율법을 준 모세, 도덕률을 준 그리스도와 같은 ‘문명의 영웅(герой-цивилизатор)’이며, 이들 중에서도 최고의 영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터에게 ‘아자젤들’은 성서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지닌 인류의 구원자이자 계몽자들인 것이다. 아자젤들은 이러한 신화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공유한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이다. 이러한 신화적 요소가 『아자젤』이라는 텍스트를 추리소설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자젤』에는 역사소설의 요소도 눈에 띈다. 코로빈의 자살사건은 1876년 5월 13일에 일어난다. 아쿠닌은 코로빈의 자살사건을 중심으로 1870년대의 러시아, 즉 알렉산드르 2세 치하의 역사적인 현실과 당시의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를 재현하고 있다. 아쿠닌은 19세기 러시아의 도시의 지명(地名), 정경, 풍습, 의상, 장식, 가구, 건축물, 오락, 관료주의와 관료들의 생활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을 안락해 보이는 먼 과거의 시간과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다음의 인용문을 읽어보자.

젊은이는 격자 무늬의 바지, 하얀 재킷 위에 아무렇게나 풀어 젖힌 프록 코트를 입고 가로수 길을 아주 이상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스위스 풍의 둥근 모자를 쓴 부인이 갑자기 그에게 눈길을 보냈다.(4)

그는 창문이 여섯 개가 달리고 가장 유행하는 러시아 스타일로 장식된 널찍한 거실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거실엔 그림이 그려진 트렁크가 있고, 벽에는 참나무 조각이 걸려 있고, 타일을 붙인 화려한 페치카가 있었다.(24)

16)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1992.

30분 후에 그는 피곤하고 지친 걸음걸이로 포크롭스키 가로수 길을 이리저리 걷고 있었다. 청소부들이 아니라 상인의 아내들이 치즈토프루드이 가로수 길의 비둘기들처럼 통통하고 뻥뻥스런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38)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아자젤』의 추리·유토피아·환상·역사 등 문학적 층위, 문화-역사적 층위, 신화적 층위 이외에, 아쿠닌은 19세기 러시아의 역사적 현실뿐만 아니라 19세기 영국의 거리와 호텔, 영국인들의 생활을 묘사하여 이 소설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¹⁷⁾ 19세기 러시아와 영국의 구체적 시공(時空)과 역사적 실체들을 보여주는 물질적 특징들(지명, 의상, 장식품, 풍습, 거리의 모습)은 소설 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규정하고, 일정한 분위기와 독특한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2.4.

문화·역사적 배경과 현실의 재현과 함께 언어와 문체의 양식화는 『아자젤』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아쿠닌은 이 소설에서 19세기의 언어와 문체를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재현하고 있다. 우선 각 장의 제목부터가 19세기 소설의 그것처럼 예스럽다. ‘어떤 시니컬한 탈선이 묘사되는 1장’(Глава первая, в которой описывается некая циничная выходка),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2장’(Глава вторая, в которой нет ничего кроме разговор) 등 17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각 장 제목은 모두 이런 식이다. 아래의 인용문처럼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19세기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1876년 5월 13일 월요일, 봄처럼 신선하고 여름처럼 따스한 날 오후 두시와 세시 사이에 알렉산드르 공원에서 많은 목격자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꼴사나운 사건이 일어났다.(3)

신력으로 6월 28일, 구력으로는 6월 16일, 저녁이 가까울 무렵에 세넨 마차 한 대가 그레이 스트리트에 있는 ‘윈터 퀸’ 호텔 앞에 멈춰 섰다. 실크 해

17) 물론 부정확한 묘사도 눈에 띈다. 일례로 당시의 런던에서는 수도에서 찬물만 나왔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부정확한 묘사의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B. Гух(2002), с. 24 참조.

트를 쓰고 흰 장갑을 낀 마부가 마부석에서 펼쩍 뛰어내려 디딤판을 펼쳐놓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검은 래커를 칠한 문을 활짝 열어제쳤다.(154)

아쿠닌은 19세기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예스러운 어투와 문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기법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쿠닌과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현대의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어와 고문체의 문장, 서툰 러시아어와 외국어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아쿠닌은 지난 세기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등장인물들의 언어를 성공적으로 개성화하고 있다. 보통 추리소설의 문체는 완전히 투명하고, 단순·명확하며 직접적이다. 또한 추리소설의 작가는 아름답고 윤기 있는 언어보다는 추상적이고 건조한 논리적 언어를 사용한다.¹⁸⁾ 그러나 아쿠닌은 언어와 문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고도의 균형감과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이 점은 아쿠닌이 쓴 추리소설의 장점이기도 하다.

『아자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현대의 사전에 나오지 않는 성, 부칭, 이름을 갖고 있다. 이런 이름들(Эраст Петрович Фандорин, Ксаврий Феофилактович, Ипполит, Амалия, Лаврентий Аркадьевич, Иван Францевич Бриллинг 등)은 이국적이고 문학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들(сударья, преставился, камердинер, извозчик, письм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жский ассесор 등)도 사건이 일어나는 일정한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아자젤』에는 적지 않은 외국인들의 이름과(Эстер, Канниге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어휘와 표현이 나온다. 이 모든 요소들은 일정한 언어적 색조를 만들어낸다. 다양한 언어-문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각종 메모, 유언장, 통지서, 광고문, 신문 기사 등도 일정한 언어적 색조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몇몇 실례를 들어보자.¹⁹⁾

18) 김중현 외(1999), 128쪽.

19) 첫 번째 예는 신문에 난 광고(“최신 미국의 코르셋 ‘바이런 경’.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남성을 위해 가장 튼튼한 고래수염으로 만들었음. 1인치의 허리, 2미터의 어깨!”)이고, 두 번째 예는 베첸츠키야가 사진틀 뒤에 쓴 메모이고(“포르트에게. 포르트는 슬피 울면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사랑한다면 맹세를 저버리지 말아요!” 아. 베.)이고, 세 번째 예는 코로빈이 남긴 유언장의 첫 부분(“아래에 서명한 나, 포르트 알렉산드르 코로빈은 아래의 증인들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완전한 의식상태에서 내 재산에 대한 나의 유언을 공표한다”)이다.

Новейший американский корсе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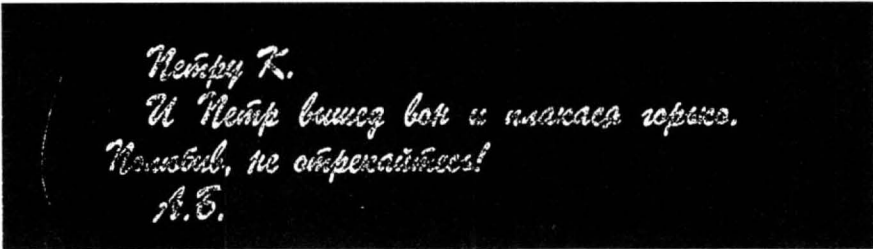
<<Лорд Байрон>>

из прочнейшего китового уса

для мужчин,

желающих быть стройными,

Талив в дюин, плечи в сажинь!



다양한 서체, 다양한 언어와 문체를 보여주는 인용문과 삽입문은 각각의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독특하게 묘사하면서 일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소설 속의 다양한 언어와 문체는 시각적 효과를 자아내면서 독특한 심포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심포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이 울리고 있다. 이 심포니에서 우리는 작가의 아이러니컬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작가의 아이러니컬한 목소리는 종종 문서와 보고문의 문체나 에스터의 열정적인 웅변조의 어투에 의해 중단되기도 한다. 결국 다양한 언어와 목소리는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성격을 밝혀 보여주기 위한 면밀히 계산된 기법인 것이다.

『아자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이름, 슈제트, 모티브, 상황은 러시아

고전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이름, 슈제트, 모티브,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 에라스트 판도린이 사랑하고 이 때문에 죽게 되는 리자(카람진의 『가련한 리자』), 판도린이 아말리야와 만나기 전에 은테 사진틀 속의 아말리야의 초상을 보고 반하는 장면(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 결투와 승마를 좋아하는 노름꾼 이폴리트 주로프 백작(푸쉬킨의 『대위의 딸』), 코로빈이 자살한 장소와 일시의 구체적 묘사(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인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에스터의 이론과 사상(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 등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²⁰⁾ 이러한 대비, 인용, 모방, 패러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요소로 역사소설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러시아 추리소설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새로운 시도이다.

아쿠닌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는 본격문학과 통속문학의 중간, 즉 유럽의 애거서 크리스트와 길버트 체스터튼의 추리소설 같은 정상적인 오락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별 다른 생각 없이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정교하고 다층적인 수학적 계산도 깔려있다고 고백한다. 즉 까다로운 독자들은 이러한 기법에 내재된 역사적인 농담과 수수께끼의 층위, 의도적인 문학적 인용의 층위를 더 재미있어 한다는 것이다.²¹⁾ 실제로 아쿠닌은 『아자젤』에서 러시아 고전소설(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의 모티브, 기법, 의도적인 문학적 인용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초인사상’ 이론과 순종적이고 행복한 인류에 대한 종교재판장의 꿈은 『아자젤』에서 독특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라스콜리니코프, 종교재판장, ‘아자젤들’은 모두 세계를 교정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동일한 이론과 사상을 갖고 있는데, 『아자젤』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구원자가 나폴레옹이나 종교재판장이 아니라 ‘아자젤’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자젤』에 나타나는 대비, 인용, 모방, 패러디 등의 기법은 역사와 고전을 갖고 노는 즐거운 오락이자 고전소설의 진지한 이론과 사상을 대중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어쓰려는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20) С. П. Белокурова, С. В. Друговойко(2001), сс. 251-152.

21) В. Акунин(1999) “Так интереснее мне и веселее взмыскательному читателю,”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23 дек.)

3.

‘전국의 아쿠닌화’란 말이 있을 정도로 20세기 말의 러시아를 강타한 아쿠닌 열풍은 분명 사회적 현상이면서 문학적 현상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이후 러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대중성과 오락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학은 독자들의 새로운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적 오락인 추리소설은 이전보다 삶의 여유가 생긴 러시아 독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범인은 반드시 체포되어 벌을 받고 대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러시아 독자들은 마피아를 비롯한 조직범죄가 판을 치고 관료의 부패와 무능이 만연된 사회에서 불안정하게 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범죄조직을 파헤쳐 범인들을 소탕하는 마리나니의 아나스타시야 형사와 아쿠닌의 에라스트 판도린 형사는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러시아 대중소설 일반과 『아자젤』 및 아쿠닌의 다른 소설들은 이런 맥락에서 보다 진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아자젤』의 열풍을 일단 문학적 현상으로 보고, 『아자젤』의 슈제트, 주인공, 테마, 예술적 특징들(언어와 문체, 시간과 공간)이 기존의 고전적 추리소설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복잡한 슈제트의 빠른 전개와 반전, 비범한 추리력과 냉철한 논리로 무장한 ‘안락의자형 탐정’이 아닌 성실과 자기희생으로 무장한 ‘움직이는 탐정’인 판도린 형사,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닌 역사소설·사회적 유토피아소설·환상소설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고품격의 추리소설, 예스러운 언어와 다양한 문체적 실험(양식화, 대비, 모방, 패로디, 암시, 메모·광고문·신문기사·통지서의 삽입), 이국적인 배경과 분위기 등이 기존의 고전적인 추리소설과 다른 ‘새로운’ 추리소설인 『아자젤』의 ‘새로운 언어’(новое слово)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러시아 추리소설의 역사에서 『아자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쿠닌의 여타 소설들과 국내외 추리소설들을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김중현 외(1999)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 김창식(2000)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 대중문학연구회 편(1996)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 도일, 아서 코난. 백영미 옮김(2002) 『셜록 홈즈 전집 1-9』, 황금가지.
- 동국대한국문화연구소 엮음(2000) 『대중문학을 넘어서』, 아세아문화사.
- 블랑, 모리스.(2002) 『아르센 뤼팽 전집 1-13』, 성귀수 옮김, 까치.
- 정규웅(2003)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 포, 에드거 앨런.(2002) 『우울과 몽상』, 홍성영 옮김, 하늘연못.
- 황종호(2002) 「추리소설의 전망」, 『21세기 문학』, 가을호.
- Акунин, Б.(1999) “Так интереснее мне и веселее взыскательному читателю,”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23 дек.)
- _____ (2002) *Турецкий гамбит*. Москва: Захаров.
- _____ (2003) *Азазель*. Мовква: Захаров.
- Белокурова, С. П., Друговейко, С. В.(2001)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Конец XX ве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аритет.
- Егор, Г.(2000) “Акунизация всей страны. Гомукул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ни-
жный клуб*, Екатеринбург, No. 3.
- Минералов, Ю. И.(2002)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90-е годы*, Москва:
Владос.
- Мифолр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1992). Москва.
- Мясников, Б.(2001) “Бульварный эпос,” *Новый мир*, No. 11.
- Немзер, А.(2000) *Литературная сегодня. 90-е годы*. Москва.
- Руднев, В. П.(1997) *Словарь культуры XX вака*, Москва.
- Скоропанова, И. С.(2001) *Русская постмодерн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Новая фила-
софия, ноайй язык*, Сант-Петербург: Невский проспект.
- Тух, Б.(2002) *Первая десятка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сква: Оник
21 век
- <http://akunin.ru>
- <http://fandorin.ru>

Резюме

О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массовой литературе: на материале романа Б. Акунина *Азазель*

Ли, Хан-Зе

Настоящая стать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сюжет, героев, проблематику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своеобразие(язык, стиль, время, пространство) романа Б. Акунина *Азазель*.

Сюжет романа Акунина *Азазель* очень сложные. И действие романа быстро разбивается и резко меняется. В отличие от обычного детективного романа,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этом романе является не сыщиком, а сюжетом. И герой-сыщик Эраст Фандорин не так остроумный и холодный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й детектив Шерлок Холмс. В этом смысле Фандорин новый образ сыщика с экшеном.

Роман Акунина – это своеобразная смесь собственно детектив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омана, утопии и фантастики. Это не чистый детектив, он нагружен социальными мотивами, связан с русской и мировой классикой. В *Азазеле*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пластов: собственно детективный,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В *Азазеле* присутствует стилизация, то есть известное подражание стилю литературы 19 века, когда действие романа происходит. В романе немало нерусских персонажей и имён, слов и выражений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ах. Всё это также создает определённый языковой колорит. Это касается и всякого рода вставок в виде записок, справок, объявлений, отрывков из газет и так далее. Колорит и приметы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передают описания одежды героев, обстановки, места действия, мебели, архитектуры города.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всё это повышает значение и содержательную ценность романа *Азазель*.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 2003. 10. 13
 논문심사: 2003. 10. 31 ~ 11. 28
 심사완료: 2003. 12. 5

필자약력(이항재)

소 속: 단국대학교 교수
 출 신: 고려대학교
 전 공: 러시아 소설
 대표논문: 「현대 러시아 여성소설의 'чернух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14집, 2003)
 대표저작: 『소설의 정치학: 푸르케네프 소설 연구』(문원출판, 1999)